

조선의 군주들에게 배우는 위기 대응법

조선의 위기 대응 노트

김준태 지음



조선의 왕 인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 전쟁을 겪었다. 역사가들은 인조가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쇠락해가는 명나라와 청(후금)나라 사이에서 명의 편을 들고 청을 무시해 적으로 돌렸다.



천민출신 장영실을 등용해 과학을 부흥시킨 세종의 리더십은 인재를 보는 안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영화 '천문' 장면.

전쟁 이후에도 인조는 남 탓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제면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다. 한국철학문화연구소 김준태 연구원은 인조는 '통제 환상'에 빠져 있었다고 본다. 위기와 같은 불안 요소를 자신이 제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상황을 오판했다는 의미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반성적인 성찰도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복원력을 키우지도 못했다.

뿐 본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세종은 토지 조세 제도인 공법을 개혁하면서 철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정책을 시험했으며 시행에 앞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법을 제안할 당시부터 결정될 때까지 "15년간 조정 내의 다양한 협의와 찬반 토론을 직접 이끌었는데" 지루한 과정임에도 대충 처리하지 않았다.

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無道)하여 중요사직을 이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폐위 요지였다. 그러면서 "일에는 하나의 길만 있지 않으니 그저 사리에 합당하길 기대할 뿐"이라는 철학을 견지했다.

조선의 리더들은 재난과 위기를 어떻게 마주했을까? 김준태 박사가 펴낸 '조선의 위기 대응 노트'는 현대적인 관점과 이론으로 역사적 사례를 분석한다. 수많은 재난과 위기 속에서 조선의 리더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지 초점을 맞춘 것. 전작인 '군주의 조건'에서 조선 왕들의 리더십을 정리했던 저자는 이번에는 20가지 사례로 위기 대응 리더십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세종은 구휼 행정 전반을 정비했다. 흉년이 든 지역에서 구휼미를 공급하는데 수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또한 지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난 상황은 국가 차원의 개입을 감행했다.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다.

적장자 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세종은 자적이 안 되었다. 그러나 세자라는 존재는 국가 안전과 왕권 단절을 방지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태종에 따르면 충녕대군은 학문에 힘쓸 뿐 아니라 국정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먼저 김 박사는 한(漢) 대의 학자 동중서의 말을 인용해 역사를 정의한다. "지나간 것을 살피고 다가오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과거를 현재의 교훈으로 삼을 때야 역사적 쓸모를 획득한다.

태종이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도 준비의 중요성을 일러준다. 오늘날 기업이나 정부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대체 계획과 승계 계획을 세운다. 태종은 15년 동안 세자 직위에 있던 양녕대군을 폐위한다. "세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대미문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위기는 늘 반복돼 왔다. 조선 왕들은 상황에 따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 저자는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자세히 복기함으로써 부족하나마 우리의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고 의미를 밝힌다.

(민음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0%를 향하여=2018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셀룰로이드 필름을 위한 선'이 포함된 서이제의 첫 소설집. 단편 7개로 구성된 소설집의 표제적인 '0%를 향하여'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다. 필름의 종말 이후 매체의 변화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기묘한 시간대를 형성하고, 작가는 소설적 장소를 이 시대 청춘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1558년 대구의 사족 유유가 가솔한 데서 시작되는 '유유 사건'은 21년간 이어진다. 가짜 유유가 나타나다가 하면, 15년 만에 진짜 유유가 출현하고 거짓 말과 허위 고소, 이상한 죽음 등이 이어진다.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인 저자가 사건 관련 기록과 당시의 풍속사를 바탕으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본다.



《푸른역사·1만5900원》

▲나는 미술관에서 투자를 배웠다=저자 이지혜가 미술품 투자의 노하우를 풀어놓은 책이다. 비전공자로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아트 컬렉터로 거듭난 저자는 그 간 경험하고 익힌 아티스트 지식과 노하우를 풀어냈다. 뉴욕의 미술관과 홍콩의 아트페어, 서울의 옥션을 씬 없이 다니며 보고 듣고 전하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래의창·1만6000원》

▲나는 식물을 따라 걷기로 했다=하루 5분의 초록 저자이자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 등의 삽화를 그린 식물화가 한수정 이 식물과 만나 삶의 길을 찾은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자연은 이 책에서 우리 주변의 식물과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현암사·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몸은 파리에, 심장은 폴란드에...파란만장 쇼팽의 삶과 음악

쇼팽의 낭만시대

송동섭 지음



5년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쇼팽국제피아노 콩쿠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연이다. 우리에게 5년 전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하면서 더욱 진숙해졌고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2번'과 '스케르초'를 담은 조성진의 최근 앨범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장인 쓴 '쇼팽의 낭만시대'다.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작품 활동 시기의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쇼팽은 리스트 등 음악가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사귀며 영향을 주고받았다. 특히 연상의 이혼녀 조르주 상드와의 만남은 40년 남짓이었던 그의 인생과 음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유명했고 스물 여섯의 쇼팽은 여섯 살 연상의 상드와 사랑에 빠진다. 애증이 절정된 9년여의 세월은 쇼팽 삶과 음악의 모든 것이었고 슬한 명곡들이 탄생했다.

생전에 200곡이 넘는 피아노 곡을 작곡한 쇼팽(1910-1849)은 흔히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린다. 특히 우수 어린 그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많다.

일간지에 1년 넘게 연재했던 글을 다듬어 펴낸 책은 쇼팽의 삶과 음악을 총총히 다루고 있다. 쇼팽이 활동하던 시기는 피아노가 개량을 거듭해 악기 중의 악기로 널리 보급된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유럽 전체가 혁명의 시대였으며 약소 민족과 국가들도 정체성을 자각하던 시점이었다. 음악 부분에서는 기존의 틀과 속박을 깨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낭만주의 물결이 넘치던 시대였고, 쇼팽은 리스트, 멘델스존 등과 함께 그 전위에 섰다.

또 열정적인 쇼팽의 모습을 그렸던 유명 화가 들라크루아는 쇼팽이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고 시인 하이네는 쇼팽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다. 또 피아니스트 당대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리스트와의 인연도 흥미롭다.

쇼팽과 그가 교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삶과 음악, 그 시대의 흥미로운 현장을 만나보는 책이 나왔다. 클래식 전공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클래식을 악에 심취해온 송동섭 음악연구소 크로마티스케일 소

저자는 특히 쇼팽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주목한다. 물론 그 중심은 조르주 상드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파리로 와 베스트셀러가 된 상드는 자유분방한 연애로

쇼팽의 조국 폴란드 사랑은 유명하다. 그가 바르샤바를 떠날 때 친구들은 어디가도 조국을 잊지 말라며 폴란드 흙이 담긴 은잔을 선물했고, 그 흙은 훗날 장례식에서 그의 무덤 위에 뿌려진다. 정치적 혼란에 빠졌던 조국에 힘이 되고자 폴란드 민속음악에 바탕을 둔 여러곡의 '폴로네즈'와 '마주르카'를 작곡했고, 이 음악들은 그의 시그니처가 됐다. 쇼팽은 파리에 사랑했고, 그의 무덤은 파리에 있지만 그의 심장만은 조국 폴란드 바르샤바 성직자가 성당에 안치돼 있다.

(유진트리·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의 시간=예기치 못한 가족의 아픔을 맞게 된 아이. 아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 속에 잠시 묻어두고 환상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아이가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을 따라 추억의 조각을 되짚어 나가는 작품으로, 씩씩하고 용기 있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인생에서 마주할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

성평등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에서 청소년 성평등 교육서로 채택됐다. 책은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른 교육이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을 단단하고 비좁은 세계에 가둔다고 지적한다. <창비·1만3000원>

《뜨인돌출판사·1만4000원》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이끄는 사상가', '영향력 있는 100인' 등에 선정된 차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강연을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32개 언어로 전 세계에 소개됐고,

▲거울아, 내 단짝을 보여 줘=김정업 작가의 첫번째 장편동화 '단짝아이'에 빠진 주인공 오나나가 백설 공주 속 마법 거울로 단짝 찾기 수사를 벌이는 이야기다. 일상 속 성장의 순간을 예리하게 그려내면서 집착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열렬한 여자아이들의 애정 관계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또 건강한 친구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보여 준다.

(푸른숲주니어·1만1800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